

#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4회, 잃어버린 자의 비유와 축하, 루가복음 15장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잃어버린 자의 비유와 축하, 루가복음 15입니다.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관원 집에서 식사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장소에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 명예를 얻거나 더 높은 지위로 승격시키려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한 예수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그들에게 도전하기 전에 연회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토론에서 잘 기억한다면, 그는 불구자, 절름발이,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저녁 식탁에 초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연회의 비유에서 그는 그것을 강조했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제자도의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가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예수가 식사 시간부터 시작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비평가들은 그가 함께 식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왜 함께 식사해야 하는지 그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잃어버린 자의 비유로 알게 되었고, 여러분 중 일부는 가장 인기 있는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매우 문자 그대로 잘 구성된 방식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예수께서 비평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볼 것이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실 것이고, 그다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틀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비유의 원인을 살펴보고 상실, 회복, 축하를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100과 2라는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패턴과 절정 효과를 관찰할 것입니다. 그는 더 높은 숫자로 시작하여 10으로 가고, 그다음 2로 가고, 그런 다음 그는 펀치라인을 만듭니다. 거기에 큰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의 처음 두 구절과 관련된 가장 긴 장을 살펴보면서 불평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15장 1절과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15장 29절에서 30절에 도달할 때쯤에는 잃어버린 형제의 큰형이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담론에서 여러분이 관찰하고 싶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기쁨과 축하가 어떻게 거의 확산되는지, 그리고 또한 불평이 그 장면에서 안 된다는 이유를 제공하는지입니다. 불평에 대한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을 안내하고 누가가 중심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비유 속 인물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재빨리 보여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자들을 사용할 것이고, 여자를 사용할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예수와 같은 랍비 앞에서는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5장 1절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왔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2절에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계속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양 백 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아니하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결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7절의 편치라인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 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하늘에서 더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배경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 질문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나온 질문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께서 목자를 사용하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목자는 멸시받는 존재로 여겨지고, 목자는 사회에서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목자의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여전히 어느 정도 두드러지거나 왕국에서 받아들여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기서 핵심 인물이 되고, 목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기 위해 멸시받는 직업인 목자를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99마리를 두고 사라진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양치기가 99마리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내버려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 양치기는 무리 지어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들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들은 양 떼를 돌볼 것입니다. 주요 목자가 실종된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여기서 핵심 문제입니다. 99 마리를 그들의 운명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99마리는 다른 목자들이 돌볼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의 아이들이겠지만, 목자가 시간을 따로 내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자신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찾으려는 노력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으면, 그는 그 양을 잡아서 어깨에 메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그 양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양을 찾아서 잡아서 어깨에 메는 승리의 장면이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 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노드그래스가 그의 우화에 대한 책에서 쓴 것처럼, 잃어버린 양은 대개 옆드려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이 우화에서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청중은 양이 길을 잃으면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옆드려 있지만, 이 어리석은 동물은 여전히 목자에게 매우 중요해서 목자가 그렇게 했고 목자가 그것을 찾았을 때 목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축하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 사실, 예수님은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처럼, 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와 친척을 불러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발견되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연회의 우화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세리와 죄인들이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의 문제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정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 기뻐할 이유가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할까요? 왜 그들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싶어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는 비유에서 여자를 주인공으로 사용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누가의 서사에서 누가는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 사마리아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먼저 목자를 사용하시고, 이번에는 여자를 사용하심으로써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읽었습니다.

아, 또는 은화 열 개가 있는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다닐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으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은 동전을 찾았노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10절의 편치라인을 주목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서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는 지참금 일부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를 사용하는데, 그 여자는 끈기 있게 찾아다니며 축하하기 위해 전화를 걸지만, 여기 편치라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주목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가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는 자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나요? 오,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미 회개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왕국이 가져다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오래된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녁을 먹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축하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는 이런 문제에 바리새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여자를 중심 인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소유에 대해 언급하고 소유를 찾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에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되는 진정한 노력과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대한 감각.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또는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매우, 매우 인기 있는 비유를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화를 읽을 때,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낭비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망한 아버지의 어조와 임기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탕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낭비하는 방랑자라는 배지를 붙이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여기서 하는 일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축하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진짜 아들이 있는데,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할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는 탕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우화에 어떤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탕자를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탕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는 우화,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포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로운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 두 잃어버린 아들의 우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또한 제가 이 토론에서 보여드릴 아버지의 모습과 이 우화 속 두 아들의 성격과 초상화를 포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인 사랑을 언급했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언급하며 이를 아버지의 사랑의 우화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기 시작합시다-누가복음 15장 11절.

그리고 그는 두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올 재산의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어린 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렸을 때, 그 나라에 심한 기근이 생겨서 그는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시민 중 한 사람에게 가서 고용되었고, 그 사람은 그를 밭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부분으로 배불리 먹고 싶어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자신의 종들을 고용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내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빵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일어나서 내 아버지에게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의 고용된 종들 중 하나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아서 먹고 축하합시다. 편지라인 구절 24,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지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와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인 중 한 명을 불러서, 이 일들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는, 실례합니다, 그를 무사히 다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많은 해 동안 당신을 섬겼습니다. 저는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친구들과 함께 축하할 어린 염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치운 당신의 아들이 왔을 때, 당신은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다.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의 형은 죽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지만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 이것은 감동적인 비유이고,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몇 가지 핵심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우화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들과의 사건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큰 아들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우화에서 부모를 돌보는 문화적 의무의 위반을 봅니다.

고대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자녀는 노년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보고 적절하고 품위 있는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돌아오지 않을 의도로 아이와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명예롭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런 행동을 개탄해야 합니다. 이 어린 아들은 주요 문화적 원칙을 어겼습니다.

이 소년의 탕자의 일반적인 태도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요 요점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행동을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그는 당신이 그를 낭비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요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 소년으로서 그는 너무나 많은 필요가 생겼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를 키우고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방인에게서 자신을 숨겼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 그는 그보다 더 낮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이 우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잃어버린 아들의 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어떤 몫을 가졌는가? 그는 부모가 죽었을 때만 상속 재산의 일부만 가졌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할지 주목하세요 .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문제없어, 네가 그걸 요구하면 내가 줄게 .

이 구절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유대인 소년이 가서 이방인에게 고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대로, 그는 자신의 소유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떠났고, 이는 그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할 때, 그들은 다른 쪽의 풀이 더 푸르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것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반항적인 정신으로 그들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의 상황은 너무, 너무, 너무 나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집을 떠났는지, 비유에서 몇 가지 문제를 꺼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집을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돌아오지 않을 의도로 집을 나갔습니다, 13절. 그는 모든 소지품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는 15절에서 떠났고, 방탕한 생활에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30절에서 그의 형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은 실제로 당신이 그에게 준 모든 재산과 재산을 창녀들에게 썼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매춘부와 모든 돈을 썼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집을 떠나서 이방인과 함께 일하고 돼지를 먹고 싶어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 소년으로서 저는 레위인 , 이사야,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더럽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에 의해 자신을 이 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들에 대한 이 조건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판결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모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은 명확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신에 대한 죄는 그의 행동과 모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이라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 당신은 "네, 저는 항상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까요? 오, 예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들이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는 아버지의 재원을 재고하고, 만일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이 훨씬 더 잘 대우받는다면, 그들은 먹을 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거야. 알다시피, 집으로 가는 여정은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의해 촉발될 거야. 18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가 망쳤다고 말하겠어.

나는 아버지께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표적을 놓쳤습니다. 18절, 당신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급진적인 회개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18절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이어지는 그 진술에서 이 아들은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만한 행동은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재산의 자신의 몫을 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외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고, 심지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든 그의 거만한 행동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회개한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19절에서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께 여쭙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이 될 수 있는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이 밖에서 받는 대우보다 더 잘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나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이야기 속 아버지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주고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큰 마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시다시피,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그 집에서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화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축하 방식입니다.

20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다시 말해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한 곳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는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간 아들과 닮은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들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소유물을 뺏 채, 아마도 비참하고 별거벗은 모습일 수도 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연민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아들의 뉘우침의 감정도 듣기 전에, 그에게 이런 짓을 한 아들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여 아들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선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하인들에게 그에게 옷을 입히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신발을 주고, 존엄성을 느끼게 하고, 그를 복위시킬 반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잃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의 발치에 신발을 주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자유인의 표징인가. 아들은 노예가 되고 싶어했다. 친구들이여, 예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잊어버리기 전에, 그의 목표는 그 질문에 대해 걱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나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미 왕국의 시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이유가 있습니다.

잔치를 열 이유가 있습니다. 연회를 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축하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들, 여러분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에 이르면 사람들은 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우화에서, 만약 당신이 축하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식사 시간은 축하하기에 좋은 시간이자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특히 두 아들의 마지막 비유에서, 세리와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몇 분 후에 살펴볼 사람은 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 왜 큰 문제일까요? 유대인은 그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특히 죽은 자신의 부모와 같은 친척을 대할 때에만 그 몸을 대할 수 있는 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주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패턴이 절정의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아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축하합니다. 둘째, 이 우화에서 중요한 문제를 주목하세요.

아버지의 태도 대 큰아들의 태도. 보다시피,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귀환을 기꺼이 축하하고 싶어합니다. 큰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잘못된 아들을 부드러운 사랑과 축하로 회복시키려는 열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전개되는 어떤 것을 주목하세요. 만약 큰형이 초대를 수락하고 와서 합류한다면, 그는 실제로 잃어버렸지만 이제 돌아온 형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침묵이 흐르는 이 비유에서 누가는 큰형이 오라는 초대에 응할지 말지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아내게 두라는 말인 듯합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축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리고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빠대만 남은 형제들이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이 축하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놓치기 전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 하지만 잠깐, 이 세션을 끝내기 전에, 형을 보세요. 그리고 이 세션을 끝내기 전에, 이 형에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주장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충성했습니다. 사실, 형제의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재산은 그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연회에 가지 않으려는 문화적인 거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파티를 열고 있는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그를 본떠 온 그의 형은 감히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하지만 이 우화에서 다른 것을 알아차리세요. 저는 수업에서 이 점을 지적할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을 봅니다.

보시다시피, 형은 동생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30절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은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없었고, 당신의 이 아들은 당신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30절에서 상황을 과장합니다.

그는 당신의 이 아들이 당신의 돈을 창녀들에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를 강조합니다. 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던졌다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침묵 속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형이 파티에 합류할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사회적 행사에 예수님과 합류할 것인가? 당신이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멀리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에 대해 진실한 사람이 하는 것을 금하는 바로 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네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는 찾았으니 축하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으니 축하합니다. 선의로 잃어버린 자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자이고, 아라파호가 당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신과 함께 서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소년이 돼지를 먹이는 지경까지 갔더라도,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옛날 학교 찬송가 중 하나를 마치며 떠올리게 하는데, 그 찬송가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는 당신과 나를 부르신다.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오세요. 지친 여러분, 집으로 오세요. 정직하고 부드럽게, 예수님은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과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왕국의 포용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죄인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리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초대해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분이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신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장소. 안식의 장소.

해방의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이 포용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탁월함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축하하시는 장소.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가면서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에게 제가 처리하고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 중 일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제 여정의 일부가 되세요.

함께,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양떼에 초대하는 사람들의 풍요로움과 광대함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당신과 내가 그의 집안에서 그와 함께 저녁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축하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안의 거부의 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가가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돌보시는지 이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신은 은혜롭게 팔을 뻗어 당신이 와서 그를 껴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신의 사랑의 팔에 껴안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잃어버린 자의 비유와 축하, 루가복음 15입니다.